

## (주)퍼스트에이엔티의 사회공헌활동

# 실천하는 나눔의 따뜻함

하나, “스스로에게 담당하자. 둘,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자. 셋, 기업은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2002년 8월 설립된 (주)퍼스트에이엔티(대표 백호근, www.firstant.co.kr)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창업 5년 만에 6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이 바탕으로 백호근 대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원칙을 꼽았다. 그리고 백대표의 굳은 원칙은 퍼스트에이엔티의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세상 곳곳에서 실천의 싹을 틔우고 있다.

###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퍼스트에이엔티는 주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2006년 3월부터 시작한 ‘퍼스트에이엔티 장학금 수여식’. 매년 상반기에 걸쳐 총 20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기금은 밝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백 대표의 모교인 숭실고등학교에 매학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 2008년 상반기에도 역시 제4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SOS어린이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마음놓고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각종 행사를 후원하고 있는데, 매달 서울 SOS어린이마을 PC A/S 실시 및 최적의 PC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 취지로 서울 SOS 어린이마을을 초청하여 존앤존 축구동호회와 연예인축구단 ‘슈퍼스타즈’의 친선경기를 열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도 했다. 경기는 퍼스트에이엔티 축구동호회와 텔런트 이종원, 김병세, 윤용현, 임대호, 아나운서 김현욱 등을 비롯한 20여 명의 슈퍼스타즈 선수들이 참여했으며, 서울 SOS어린이마을에 희망의 축구공 증정 행사를 가졌다.

퍼스트에이엔티의 사업영역을 살려, 전국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존앤존PC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후원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소년소녀가장들이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된 이 행사는 소년소녀가장들이 게임 등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EBS인터넷방송, e러닝 등 학습의 장으로 존앤존PC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퍼스트에이엔티는 사랑의 밥차,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한소리회’ 등에도 많지 않은 액수지만 꾸준한 지원을 보내는 한편,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발랑리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1사1촌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회사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으로 구직자 무료출력 서비스, 사랑의 빵 후원운동, 동남아 쓰나미돕기 기금모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이 진행되어 왔다.

퍼스트에이엔티의 백호근 대표는 “기업은 이윤 추구에 앞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퍼스트에이엔티는 매장을 찾는 고객들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 환원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말한다.

앞으로는 크리스마스 및 어린이날 등에 다양한 행사를 열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계획구상중이라는 퍼스트에이엔티와 백호근 대표. 지금보다 더 많은 나눔을 꿈꾸는 퍼스트에이엔티에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누군가에게 더 큰 사랑과 희망의 곶으로 돌아온다는 따뜻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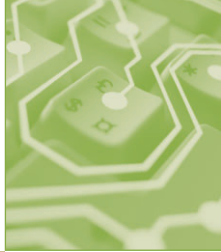


# noblesse oblige

글\_윤기영  
(퍼스트에이엔티 전략기획팀 차장)

존앤존PC방과 한국형 퓨전주점 수리야  
를 비롯 한국대표우동 한우용, 셀로 만든  
특허치킨 클리치킨, 퓨전테스토방 미야  
따 등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이다.





# 스스로 체크하는 윤리경영!

##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촉진' 관련 정부의 각종 시책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은 기업들 스스로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파악하고 실행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FKI-BEX, FKI Business Ethics index)'를 개발했다.

ISO가 제정하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될 예정이고, 2001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SR(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안도 2009년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규범에 관련된 설문항목을 제시한 이 지표는 기업간 윤리경영의 우수성 여부를 따지는 평가용 기준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현재의 윤리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자사 현황에 대한 솔직한 자율진단을 통해 향후 자사의 윤리경영 전략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윤리경영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때 윤리경영을 보다 내실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및 시스템 등 기본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고객·종업원·협력업체·주주·경쟁기업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자율진단지표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제적 지표이며 기업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외에 업종별로 각기 다른 사업 환경과 특성을 감안하여 생산재 제조업, 소비재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등 5대 업종별로 나누어 설문문항을 만들어 실용성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기업의 제1차적 책임인 기업의 경제적 기여,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해외 지사, 안전 및 품질 부문에도 비중을 두었다.

자율진단영역은 윤리경영 제도 및 시스템, 고객, 종업원, 주주 및 투자자, 경쟁업체, 협력업체 및 사업파트너, 지역 및 국제사회 등 7대 부문으로 구성됐다. (그림 참조)

전경련 사이트 [www.fki.or.kr](http://www.fki.or.kr)에서 PDF로 열람할 수 있으며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다.

담당 : 전경련 윤리경영팀 김보수 부장(☎02-3771-0337, [kbs@fki.or.kr](mailto:kbs@fki.or.kr))

